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0. 2. 9(일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공주택지원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최아름, 사무관 서형우 • ☎ (044) 201-453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년주택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세계일보, 2.9) >

◆ 청년 올리는 청년임대주택

- 청년주택 입주민 쓰레기, 소음 발생 등 관리 부족 - 관리도 정부의 의무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「주거복지 로드맵(17.11)」, 「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(18.7.5)」에 따라 '22년까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7만실*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.

* (~'22) 청년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 + 청년 공적지원주택 총 13만실

- 지난해에는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·연지동 등에 총 8개소(1,016호),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(광주 첨단, 100호) 등 총 2.85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.

□ 공급 이후에도,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청년의 생활 방식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분리수거, 지역 공동생활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의 자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'청년주택 코디네이터*'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,

* (예) 입주初 공동생활 규칙 교육, 청년 커뮤니티 구성 및 정착 집중 지원,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'청년 동장' 선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

○ 청년주택 ‘공동생활 가이드라인’을 마련(‘20.3)하고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입주민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분리수거, 소음방지 등 공동생활 규칙, 커뮤니티 참여 등 포함

□ 이 외에도,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잦은 이사 등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말부터 전면 공급중인 생활필수집기(냉장고·에어컨·세탁기 등)가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,

○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쓰레기 분리수거함, CCTV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입체적 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(☎ 044-201-45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